

---

# 주요국 예산안 - 영국

##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

---

2021. 12.

동 보고서는 2021년 10월 27일에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발표한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와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경제재정분석팀장

## 공동연구원

한혜란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 및 재정 전망 .....	1
가. 경제 전망 .....	1
나. 재정 전망 .....	2
2. 예산 기초 및 정책 방향 .....	5
가. 재정 기초 .....	5
나. 정책 방향 .....	6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7
가. 수입 전망 .....	7
나. 지출 전망 .....	8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 .....	11
가.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	13
나. 성장에 대한 투자 .....	15
다. 국민 및 기업 지원 .....	17
라.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	18
마. 지역균형발전(Levelling up) .....	19
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및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	20
사.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	20
5. 주요 재정정책 이슈 .....	21
가. 2021 지출검토 .....	21
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 .....	24
다. 재정준칙 개정(안) .....	26

## 영국 개황1)

□ FY2022-23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Speech*, 2021.10.27.

HM Treasury, *Budget and Spending Review - October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10.27.

HM Treasury, *A stronger economy for the British people*, 2021.10.27.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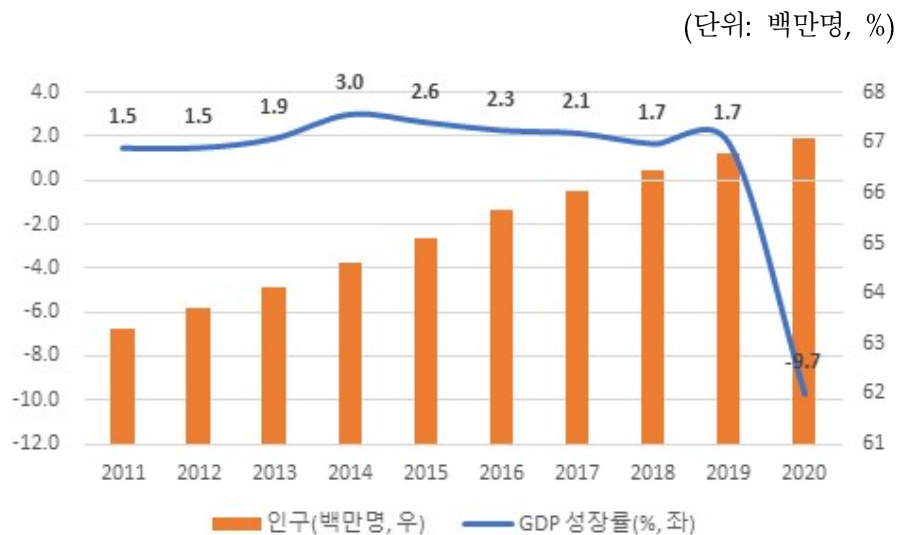
□ 환율 : 1파운드 = 약 1,513.05원(202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20년 경상 GDP 3조 82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20년 기준 55.5%

□ 인구 : 6,708만명(2020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자료 : OECD.Stat, 2021.12.8. 추출(<https://stats.oecd.org/>)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1.12.8.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1.12.8.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 전망)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에 6.5%, 2022년에 6.0%로 전망됨
- (재정 전망)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2-23에 3.3%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1-22에 98.2%로 정점을 기록한 후 나머지 전망기간(~FY2026-27) 동안 매년 감소할 전망
  - (수입·지출) FY2022-23에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9,624억파운드(GDP의 38.8%), 총관리지출은 전년 대비 미미(약 4억파운드)하게 증가한 1조 454억파운드(GDP의 42.1%)로 전망됨
- (예산기조)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원을 제외한 재정기조는 FY2020-21~FY2022-23 동안 대체로 안정적임
- (정책 방향)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팬데믹 관련 긴급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국민의 우선순위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 관련 자금 확대, 교육 캐치업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배정, 저가 주택 건설 투자 등
  - (성장에 대한 투자) 혁신, 인프라, 역량(skill)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계획(Plan for Growth)을 실행
  - (국민 및 기업 지원) 통합급여의 수당삭감률 하향 조정, 취업 및 역량개발 지원, 아동 및 가족 지원, 변화가 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 지원 등
  - (친환경적 재건)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의 우선순위 이행과 추가 핵심 분야 지원 등 녹색 산업혁명에 대한 공공 투자 추진
  -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Levelling up) 추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예정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1.2.22	FY2020-21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1.3.3.	2021 봄 예산안(Budget 2021) 발표
2021.3.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3월) 발표
2021.3.15.	2021 예비기금법(Contingencies Fund Act 2021) 제정
2021.3.23.	예산책임청(OBR), '2021년 복지 지출 보고서' 발표
2021.5.13.	재무부, FY2021-22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1.6.30.	영국 재무부, 'UK Government Green Financing Framework' 발표
2021.7.6.	예산책임청(OBR), 2021 재정 리스크 보고서 발표
2021.7.22.	'신규 혁신 전략(New Innovation Strategy)' 발표
2021.9.7.	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투자와 신규 재원 조달 계획 발표
2021.9.14.	보리스 존슨 총리, 가을·겨울 코로나19 대응 계획 발표
2021.10.19.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 발표
2021.10.27.	재무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 발표
2021.10.27.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10월) 발표

영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27일, 가을 예산안과 함께 향후 3년 동안의 정부 지출 계획을 설정하는 지출 검토를 발표함.

이하 내용은 재무부의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와 예산책임청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1. 경제 및 재정 전망<sup>2)</sup>

###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에 6.5%, 2022년에 6.0%로 전망됨(<표 1>)

- '2021년 10월 전망'에서 '2021년 3월 전망'과 비교해 2021년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해 GDP 성장률을 2.4%p 상향 조정, 2022년은 소비와 주거 투자의 성장 둔화를 반영해 1.3%p 하향 조정함
-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를 '3월 전망'보다 수개월 빠른 2021년 말 ~ 2022년 초로 전망
- 팬데믹이 잠재 생산에 미치는 중장기 경제적 손실을 기존 전망의 3%보다 낮은 2%로 추계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실질 GDP를 상향 조정함

□ (노동시장) 영국의 실업률은 2021년에 4.9%로 전년보다 상승한 후, 2022년에는 4.8%로 다소 하락할 전망

- '코로나19 고용 유지 보조금 지원제도'가 종료(2021년 9월)된 후 실업률은 2021년 4분기에 5.2%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이후 하락하여 2024년에 4.2%로 예상되며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생산과 고용의 빠른 회복과 기록적인 빈 일자리 수를 반영해 단기 실업률 전망치를 '3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함

2)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2021년 9월에 3.1%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몇 달 간 더욱 상승해 2022년 2분기에 4.4%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유틸리티 가격 상승, 운송 비용 증가, 공급 병목현상 등이 CPI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임
- 에너지 가격 안정화, 공급 병목 현상 완화, 재정 패키지의 추가 부양에 대응한 완만한 통화 긴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는 목표치인 2%로 돌아갈 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성장률	-9.8	6.5	6.0	2.1	1.3	1.6	1.7
(21년3월 전망 대비 변화%p)	0.1	2.4	-1.3	0.3	-0.2	-0.1	.
- 가계소비	-10.9	4.7	9.8	1.3	1.7	1.3	1.0
- 일반정부소비	-6.5	14.7	2.0	1.5	1.2	1.7	2.1
- 기업투자	-10.2	-2.4	15.7	4.7	-0.8	4.8	5.8
- 일반정부투자	3.5	14.7	-2.1	6.5	-1.0	1.1	1.8
- 순수출 <sup>1)</sup>	0.8	-0.8	-2.5	0.3	0.1	-0.1	-0.2
소비자물가(CPI)상승률	0.9	2.3	4.0	2.6	2.1	2.0	2.0
고용(백만명)	32.5	32.2	32.6	33.0	33.2	33.3	33.4
평균 임금 상승률	1.2	5.0	3.9	3.0	2.2	2.9	3.5
실업률(LFS)(%)	4.6	4.9	4.8	4.3	4.2	4.2	4.2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1.1; Table 2.9.

##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1-22에 7.9%, FY2022-23에 3.3%, FY2023-24에 2.4%를 기록하며 매년 하락할 전망([그림 1])
  - 팬데믹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차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FY2022-23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6-27에 1.5% 수준까지 점차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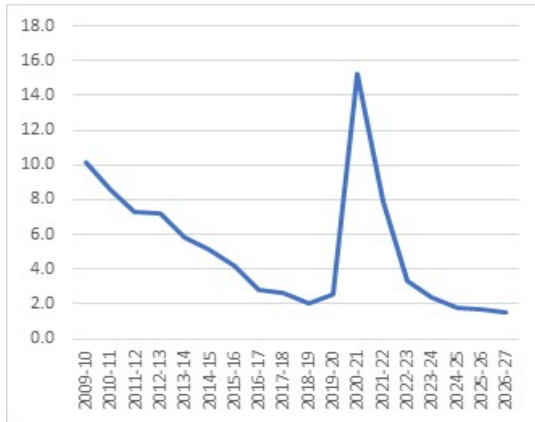
여 팬데믹 이전인 FY2019-20의 수준을 하회할 전망

- (경상예산수지)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는 FY2020-21의 11.8%에서 FY2021-22에 5.3%, FY2022-23에 0.6%까지 급격히 하락할 전망
  - 이후 중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예산은 FY2023-24에 흑자로 전환되고 FY2026-27에는 GDP 대비 1.1%(330억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 순투자) FY2021-22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 비율은 3%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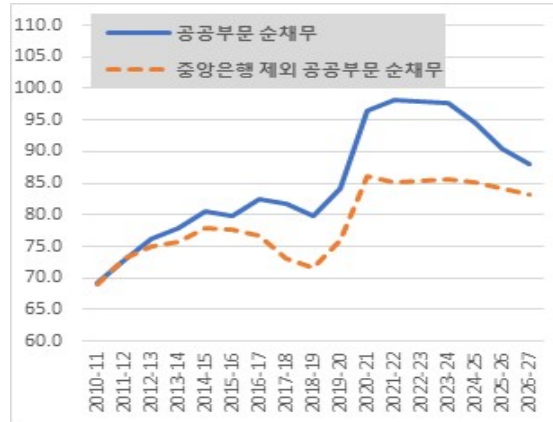
□ 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을 포함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98.2%로 증가하여 FY1962-63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그림 2])
  - 이후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매년 감소해 FY2026-27에는 88.0%에 이를 전망이나,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 전망'의 예상치에 비해 약 20%p 더 높은 수준임
  - 전망기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차입 전망 개선을 반영해 '3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1-22에 85.2%, FY2022-23에 85.4%, FY2023-24에 85.7%로 증가한 후 FY2024-25년 ~ FY2026-27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추정

[그림 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그림 2]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Chart 1.8; Chart 3.14 일부 수정

<표 2> 주요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b>세입·세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	37.9	37.2	38.8	39.6	39.8	39.9	40.0
총관리지출(TME)	53.1	45.1	42.1	41.9	41.6	41.6	41.6
공공부문 경상지출	47.1	40.1	37.1	36.8	36.6	36.6	36.6
공공부문 순투자	3.5	2.6	2.7	2.9	2.7	2.7	2.7
감가상각	2.5	2.4	2.3	2.3	2.3	2.3	2.3
<b>재정적자</b>							
경상예산 적자	11.8	5.3	0.6	-0.5	-0.9	-1.0	-1.1
공공부문 순투자	3.5	2.6	2.7	2.9	2.7	2.7	2.7
공공부문 순차입	15.2	7.9	3.3	2.4	1.7	1.7	1.5
경기조정 순차입	15.1	8.3	3.9	2.7	1.8	1.7	1.5
<b>채무</b>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sup>1)</sup>	86.1	85.2	85.4	85.7	85.1	84.2	83.3
공공부문 순채무 <sup>1)</sup>	96.6	98.2	97.9	97.8	94.7	90.5	88.0
<b>국제 비교</b>							
일반정부 순차입	15.4	8.1	3.3	2.3	1.8	1.8	1.5
일반정부 총채무	105.9	100.9	98.7	98.2	97.6	96.4	95.1

주: 1) 3월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1.3; Table 3.38.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1.14

## 2. 예산 기초 및 정책 방향

### 가. 재정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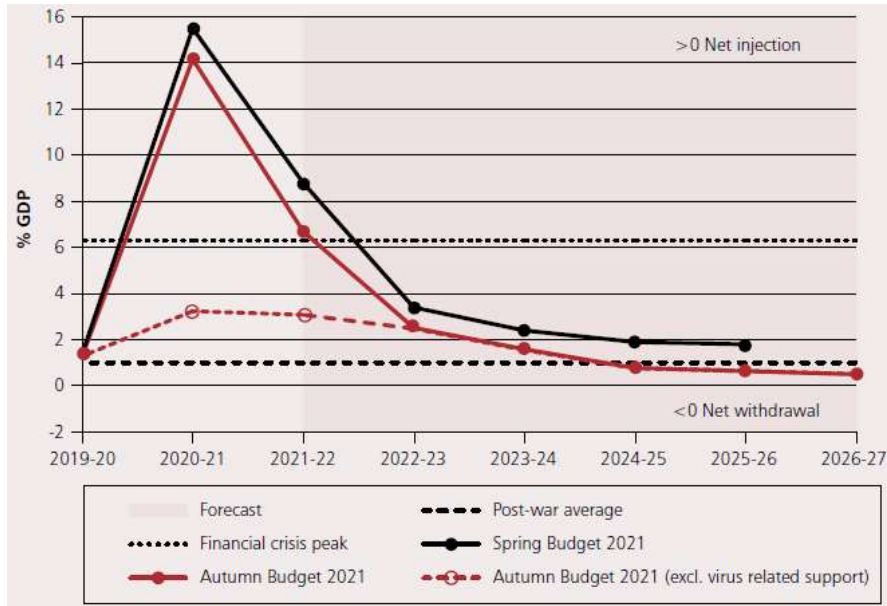
-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동안 경제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의 지속가능한 경로를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sup>3)</sup>
    - 팬데믹 이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3,230억파운드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제공
    - 자본 투자 변화가 포함된 '2020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의 결정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경제를 위해 3,780억파운드의 직접 지원을 제공
  - 코로나19 지원을 제외한 재정기조(fiscal stance)는 FY2020-21 ~ FY2022-23 동안 대체로 안정적(broadly stable)임<sup>4)</sup>([그림 3])
    - FY2020-21과 FY2021-22에 정부가 예외적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팬데믹의 즉각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정책이었음
    - 코로나19 제한이 종료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FY2021-22부터 재정지원이 역사적 평균 수준을 향해 줄어들 전망
    - 또한 경제·재정 전망 개선으로 이번 예산안의 재정정책이 지난 봄 예산안보다 더 확장적이지는 않음<sup>5)</sup>
  - 정부는 차입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FY2024-25에 재정준칙에서의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임
    - \* 이 시점은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지 2년 후이며 실업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4.2%로 예상되는 시점임

3) 각 연도 예산안의 정책 결정이 차입에 미치는 총 영향을 바탕으로 추계

4) 경기조정 기초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추계

5) *Fiscal policy is not significantly more expansionary than Spring Budget.*

[그림 3]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로 측정된 재정 기초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Chart 1.5

## 나. 정책 방향

- 2021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강화된 공공 서비스, 기회의 레벨 업, 비즈니스 성장, 일하는 가족의 생계비 지원 등 영국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

※ 세부 정책 결정은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에 제시됨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회복, 개혁, 회복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미래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공공 서비스 수준을 제고
- (성장에 대한 투자) 고임금, 고숙련, 고생산성 경제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혁신, 인프라, 역량(skill)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성장 계획(Plan for Growth)’을 이행
- (국민 및 기업 지원)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팬데믹 동안 제공된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제공
-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의 우선순위 이행과 추가 핵심 분야 지원 등 녹색 산업혁명에 대한 공공 투자 추진
- (지역균형발전(Levelling up))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국민과 지

역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보장

- 이 외에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sup>6)</sup> 비전 달성,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예정

###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가. 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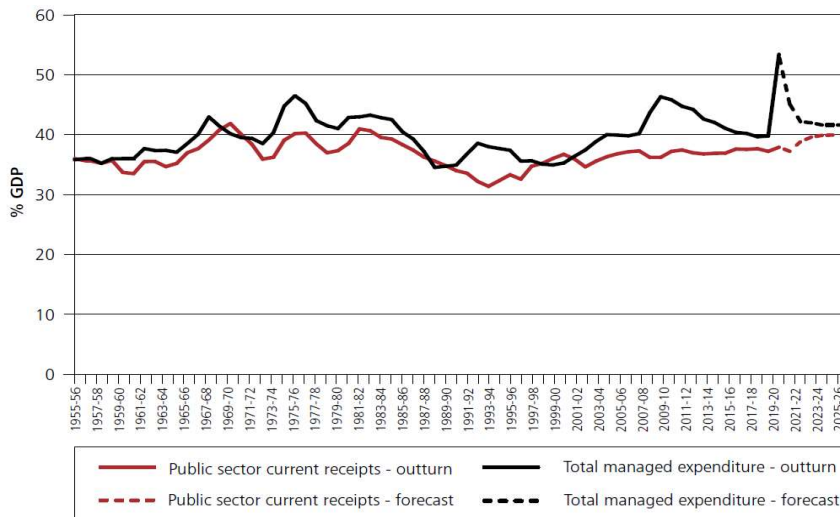
□ (중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Public sector current receipt)은 FY2021-22에 37.2%에서 FY2026-27에 40.0%로 증가할 전망([그림 4])

- 봄과 가을 예산안의 주요 조세 정책 조치\*들의 영향으로 특히 FY2022-23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

\*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개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기준 금액 동결,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 등

- GDP 대비 조세 비율도 팬데믹 이전인 FY2019-20에 33.5%에서 FY2026-27에 36.2%로 증가해 1950년대 초<sup>7)</sup> 이래로 최고 수준이 예상됨

[그림 4] GDP 대비 수입 및 지출 비율 추이



주: 공공부문 경상수입과 총관리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직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Chart 1.10

- 6)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언급한 용어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위한 비전'을 의미함. 영국이 유럽 국가들의 파트너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유·개방 무역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며, 세계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임
- 7) 전쟁 후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 후반

- (단기) 공공부문 경상수입 규모는 FY2021-22에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한 8,620억 파운드, FY2022-23에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9,624억파운드로 전망됨
  - FY2022-23 기준, 세목별로 소득세(2,296억파운드), 국가보험 기여금과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1,820억파운드), 부가가치세(1,550억파운드), 법인세(566억파운드), 카운슬세<sup>8)</sup>(418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표 3>)

## 나. 지출 전망

- (중기) GDP 대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비율은 FY2019-20에 39.8%에서 FY2020-21에 53.1%로 증가해 정점을 기록한 후, 팬데믹 관련 지출이 종료됨에 따라 FY2021-22에 45.1%, FY2022-23에 42.1%로 하락하고 FY2024-25 이후 41.6%에서 안정화될 전망([그림 4])
  - '2021년 3월 전망'과 비교해 FY2022-23년부터의 지출 전망은 2021 지출검토에서 발표한 부처별 예산의 증가를 반영해 상향 조정됨
  - 팬데믹 이전(FY2019-20)부터 FY2026-67 기간에 GDP 대비 지출의 증가 요인은 지출 검토의 자원 DEL 확대, 자본 DEL 조정, 통합급여 지원 강화, 지방 당국 자체 조달 지출(카운슬세 인상 조치 관련) 등임
    - 반면 감소 요인은 브렉시트 관련 비용 감소, 일시적인 연금 트리플 락<sup>9)</sup> 유예(FY2022-23) 조치 등임
- (단기) 총관리지출 규모는 FY2021-22에 전년 대비 702억파운드 감소한 1조 450억파운드, FY2022-23에 전년 대비 미미(4억파운드)하게 증가한 1조 454억파운드로 전망
  - FY2022-23의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9,211억파운드, 공공부문 총투자는 8.1% 늘어난 1,243억파운드로 예상됨
    - \* 코로나19 관련 자원 DEL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보다 늘어남
  - 예산책임청의 항목별 총관리지출 전망은 <표 4>를 참고

8) 카운슬세(Council Tax)는 주택의 자산 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임  
 9) 트리플 락(triple lock) : 연금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기준 중 최댓값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하는 정책

<표 3>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소득세	198.1	213.2	229.6	240.5	253.0	268.4	284.3
국민보험기여금(NICs)	144.0	157.0	182.0	168.1	171.7	176.5	183.4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	-	-	18.3	18.7	19.3	20.1
부가가치세	118.6	131.9	155.0	159.1	163.1	167.4	172.1
법인세	51.8	52.0	56.6	75.6	85.2	89.3	91.5
석유세	-0.3	-0.4	-0.3	-0.2	-0.2	-0.1	-0.1
연료세	20.9	26.8	28.8	29.9	30.4	30.7	31.1
비주거용 재산세	19.5	22.5	29.8	34.0	34.7	35.2	36.0
지방세(Council tax)	38.4	40.1	41.8	43.6	45.4	46.9	48.4
VAT 환급(refunds)	20.2	21.0	22.9	23.4	23.6	24.6	25.9
자본이득세	10.6	9.2	13.0	15.2	16.7	18.1	19.7
상속세	5.4	6.0	6.4	6.5	6.8	7.2	7.6
부동산취득세	9.5	14.8	15.8	16.5	17.2	18.2	19.4
주식취득세	3.7	4.2	3.9	4.0	4.1	4.3	4.5
담배세	9.8	10.1	10.1	10.0	10.0	9.9	9.8
주세	12.4	12.8	12.6	13.0	13.7	14.2	14.8
항공여객세	0.3	1.1	2.1	3.2	4.4	4.5	4.8
보험료세	6.3	6.5	6.8	7.0	7.1	7.2	7.4
기후변화세	1.8	2.0	1.9	2.0	2.0	2.1	2.2
은행세(Bank levy)	1.9	1.3	1.2	1.2	1.2	1.2	1.2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1	1.6	1.2	0.6	0.5	0.5	0.5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3.0	3.2	3.2	3.3	3.4	3.6	3.7
디지털서비스세	0.3	0.6	0.6	0.7	0.8	0.9	1.1
기타 국세(HMRC taxes)	7.4	8.4	9.1	9.3	9.4	9.5	9.7
자동차소비세	6.9	7.1	7.3	7.5	7.6	7.7	7.8
면허료 수입	3.7	3.7	3.9	3.9	4.0	4.0	4.1
환경부담금	8.5	9.5	9.2	10.4	10.9	11.2	12.4
배출거래제	1.3	0.9	4.9	4.3	4.3	4.2	4.2
기타 조세	7.8	8.8	10.0	10.1	10.2	10.3	10.4
<b>국민계정 조세수입</b>	<b>713.0</b>	<b>775.7</b>	<b>869.4</b>	<b>921.1</b>	<b>959.8</b>	<b>996.9</b>	<b>1,038</b>
자체 자원 공제	-2.2	-	-	-	-	-	-
이자 및 배당	23.3	24.3	27.8	30.7	31.2	32.2	33.7
총운영수지	57.6	58.5	61.5	64.1	66.6	69.1	72.1
기타수입	3.6	3.5	3.7	3.8	3.6	3.8	3.9
<b>총 경상수입</b>	<b>795.3</b>	<b>862.0</b>	<b>962.4</b>	<b>1,020</b>	<b>1,061</b>	<b>1,102</b>	<b>1,148</b>
(GDP 대비 %)	37.9	37.2	38.8	39.6	39.8	39.9	40.0
20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8.9	42.7	77.0	75.1	67.1	64.1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3.2; Table 3.4; Table 3.6.

<표 4> 총관리지출(TME)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b>공공부문 경상지출</b>							
자원 DEL	434.5	406.0	397.6	405.8	417.5	433.7	450.3
자원 AME	554.6	524.0	523.6	542.0	556.8	575.8	597.6
사회복지지출	245.4	246.7	254.0	267.1	278.5	289.9	300.3
바이러스 관련 소득 지원 제도	78.0	17.0	0.0	0.0	0.0	0.0	0.0
지방재정 경상지출	48.9	51.6	56.1	60.3	62.6	62.3	64.4
중앙정부 총채무이자(APF 채무이자 삭감)	22.4	40.4	40.7	37.9	36.5	37.7	39.0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42.0	39.2	38.0	38.9	39.1	41.3	42.9
EU분담금	10.4	8.5	8.8	4.9	1.9	1.0	0.5
순공공서비스연금지출	4.1	3.5	3.6	4.9	4.9	5.0	5.1
기업및기타세액공제	8.7	8.9	9.6	10.9	12.1	13.1	13.8
BBC 경상지출	3.5	4.2	4.1	4.0	4.3	4.2	4.3
국가복권 경상보조금	1.5	1.5	1.3	1.2	1.3		1.3
일반정부 귀속연금	0.8	1.0	0.8	0.8	0.8	0.9	0.9
공기업채무이자	0.2	0.4	0.5	0.5	0.5	0.5	0.6
공공부문연금 제도지원	19.1	19.2	20.1	21.1	21.9	22.8	23.7
감가상각	46.7	48.2	50.3	52.6	54.9	57.1	59.7
경상부가가치세환급	17.8	18.6	20.6	21.0	21.2	22.1	23.3
환경부담금	10.4	10.5	10.2	11.5	11.9	12.2	13.4
기타 경상지출	1.9	2.3	2.8	2.7	2.8	2.8	2.9
기타 회계조정	-7.2	2.1	2.1	1.9	1.8	1.8	1.7
<b>총 공공부문 경상지출</b>	<b>989.1</b>	<b>930.0</b>	<b>921.1</b>	<b>947.8</b>	<b>974.3</b>	<b>1,009.6</b>	<b>1,047.9</b>
<b>공공부문 투자</b>							
자본 DEL	72.7	77.6	87.0	94.6	94.9	99.3	103.0
자본 AME	53.4	37.3	37.3	38.9	38.5	39.5	40.8
지방재정 자본지출	11.0	8.1	8.4	8.0	8.3	8.5	8.8
공기업 자본지출	10.0	10.7	10.7	11.0	11.3	11.4	11.8
학자금 대출	10.6	11.8	12.4	13.1	13.8	14.4	15.0
공공부문 연금 제도 지원	-0.3	1.1	1.3	1.6	1.3	1.1	1.1
스코틀랜드정부 자본지출	4.5	5.5	4.9	5.1	5.0	5.2	5.3
세무소송	0.0	1.9	0.9	1.5	0.7	0.7	0.7
바이러스 관련 대출 제도	20.9	1.5	0.5	0.2	0.0	0.0	0.0
기타 자본지출	-0.1	-0.6	1.1	1.1	0.8	0.8	0.7
기타 회계 조정	-3.2	-2.6	-2.8	-2.7	-2.7	-2.6	-2.6
<b>총 공공부문 투자</b>	<b>126.1</b>	<b>114.9</b>	<b>124.3</b>	<b>133.5</b>	<b>133.3</b>	<b>138.7</b>	<b>143.9</b>
감가상각 공제	-53.5	-54.8	-57.0	-59.5	-61.9	-64.2	-67.0
공공부문 순투자	72.7	60.1	67.2	74.1	71.4	74.5	76.9
<b>총관리지출</b>	<b>1,115</b>	<b>1,045</b>	<b>1,045</b>	<b>1,081</b>	<b>1,108</b>	<b>1,148</b>	<b>1,192</b>
(GDP 대비 %)	53.1	45.1	42.1	41.9	41.6	41.6	41.6
20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25.8	-8.3	53.1	51.3	38.9	36.8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3.14; Table 3.16.

####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

- (개요)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팬데믹 관련 긴급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국민의 우선순위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 투자를 지속하면서, 장기 성장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넷 제로(Net zero)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국민과 기업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영국 전역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
- (정책 결정의 재정적 영향)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공공부문 순차입)에 미치는 영향은 FY2021-22에 약 29억 8,500만파운드, FY2022-23에 253억 4,500만파운드로 추계
  - 주요 지출 정책 결정으로 FY2021-22에 7억 1,500만파운드, FY2022-23에 380억 4천만파운드의 지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
  - 주요 조세 정책 결정으로 FY2021-22에 22억 7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 효과, FY2022-23에 126억 9,500만파운드의 세입 증가 효과가 예상됨
  - 공공부문 순차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의 연도별 비용과 수입 영향은 <표 5>에서 제시됨

<표 5>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b>2021 지출검토</b>							
자원 DEL : 지출 상한 및 지출 가정에 조정	지출	0	-24,820	-19,165	-12,010	-10,165	-10,755
*매모 ODA 지출을 GNI의 0.7%로 복구		0	0	0	-5,220	-5,410	-5,615
자본 DEL : 지출 상한 및 지출 가정에 조정	지출	0	-540	-3,940	+170	+540	+525
지방 당국 : 카운슬세 국민투표 원칙의 영향 관련 유보금	지출	0	+20	+35	+55	+55	+60
2022-23년~2024-25년에 비주거 재산세 보전 시범사업 지속	지출	0	-105	-130	-155	-15	0
<b>더 나은 재건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계획</b>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계획: 지출	지출	0	-14,050	-11,880	-13,035	-13,415	-13,910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24): 총수익	조세	+45	+16,505	+16,805	+16,905	+17,290	+17,875
메모 고용주 임금 전가로 인한 수익 감소		0	-2,060	-2,620	-2,720	-2,825	-2,935
메모 공공부문 고용주에 대한 추가 비용 보상	지출	0	-1,735	-1,765	-1,800	-1,865	-1,935
메모 의료 및 사회적 돌봄에 할당 가능한 순수익		0	+12,710	+12,420	+12,385	+12,600	+13,005
배당세율 1.25%로 인상('24 부터)	조세	-15	+1,340	-540	+650	+815	+905
<b>영국 전역의 생활 수준 제고 및 개인 지원</b>							
통합급여: 수당삭감률 인하(63→55%) 및 근로소득공제액 인상(연간 £500)('21.12.1.)	지출	-745	-2,220	-2,385	-2,490	-2,755	-2,980
연료세 동결(2022-23년)	조세	0	-1,510	-1,550	-1,580	-1,595	-1,615
주세 개혁	조세	0	-20	-115	-125	-140	-155
주세 동결('22.2.부터 1년)	조세	-80	-545	-560	-585	-600	-620
통합급여 초과 소득기준(£2,500) 추가 1년 동결	지출	0	-70	0	0	0	0
가정학대 피해자 등에 Shared Accommodation Rate 적용 면제	지출	0	-5	-10	*	0	0
<b>기업 및 일자리 지원</b>							
비주거 재산세: 소매, 접객, 레저 부문 50% 감면(2022-23년, £110,000 한도)	조세	+35	-1,860	+40	-10	0	0
비주거 재산세: 승수 동결(2022-23년)	조세	+15	-845	-900	-965	-965	-970
비주거 재산세 사업장 개선에 감면(2023-24년부터)	조세	0	+5	-145	-140	-145	-150
비주거 재산세: 녹색 기술 지원(2023-24년부터)	조세	0	*	-40	-40	-45	-50
비주거 재산세: 소기업 지원 연장 및 2022-23년 과도기적 감면	조세	*	-30	*	0	0	0
비주거 재산세: 소기업 승수 적용 대상 관련 행정적 변화	조세	0	0	0	-5	-5	-5
연간 투자공제: '23.3.31.까지 £1백만 기준 연장	조세	-65	-240	-165	+115	+60	+50
박물관, 갤러리, 전시 조세 감면 일몰 조항 연장('24.3.까지)	지출	0	0	-5	-10	-5	0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등 조세 감면: 2년 점진적 비율 인상('24.부터)	지출	-5	-40	-115	-70	-15	0
대형 화물차 도로 이용세 유예('28~'23.7.31.)	조세	0	-145	-80	-10	-10	-10
대형 화물차의 차량 소비세율 동결(2022-23년)	조세	0	-10	-10	-15	-15	-15
은행특별세: 3%로 설정, 공제 한도 인상	조세	0	-220	-830	-975	-995	-1,020
자산지주회사(AHC) 과세 제도('24.부터)	조세	0	0	-5	-10	-15	-20
<b>기타 조치</b>							
항공여객세 개혁	조세	0	0	-35	-35	-30	-30
부동산 처분 후 자본이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세	-60	-5	-5	-5	-5	-5
이자소득 과세의 영세율 구간 유지(2022-23년)	조세	0	0	+5	+5	+5	+5
성인 ISA 연간 한도 유지(2022-23년)	조세	0	0	+5	+10	+15	+20
탄소가격지원 세율 유지(2023-24년)	조세	0	0	-15	-15	-10	-10
Car fuel benefit charge : CPI에 따라	조세	+5	+5	+5	+5	+5	0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인상(2022-23년)							
Van benefit charge: CPI에 따라 인상(2022-23년)	조세	0	+5	+5	+5	+5	+5
골재세 동결(2022-23년)	조세	0	-25	-25	-25	-25	-25
담배세: 손말이 담배세 추가 4% 인상, 최저세 추가 1% 인상(2022-23년)	조세	+15	+25	+25	+25	+25	+25
연금 크레딧과 주택수당 통합 일정 연기*(25.4)	지출	0	0	+5	+50	+95	+125
저소득자 대상 Net Pay 방식의 연금 조세 감면 변경(24.4부터)	지출	0	0	0	0	-10	-15
BBC 상업 부문의 차입 한도 단계적 인상(£350→£750)	지출	0	-15	-45	-40	+20	+95
토지등기소: 인력 증대	조세	-5	+65	+50	+35	+35	+40
유럽경제지역의 그룹 공제 폐지	조세	*	+5	+5	+5	+5	+5
주거용 부동산 개발세(4%)	조세	0	+200	+215	+225	+235	+250
<b>기존에 발표된 정책</b>							
<i>중략</i>							
<b>금융 거래</b>							
금융거래 및 보증 변화의 공공부문 순차입 영향	지출	-25	-20	+5	*	*	-5
<b>정책 결정 합계</b>	-	-2,985	-25,345	-21,855	-9,780	-7,455	-7,705
지출 정책 결정 합계	-	-715	-38,040	-34,020	-23,885	-21,730	-22,670
조세 정책 결정 합계	-	-2,270	+12,695	+12,165	+14,105	+14,275	+14,965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을 구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4) 조세정책 효과에서 마이너스(-)는 세입 감소를 의미, 지출정책 효과에서 마이너스(-)는 정부 지출 증가를 의미  
 5)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세부 내역((19개)과 연도별 금액은 원문 자료의 표를 참고 바람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5.1. 일부 수정 인용

### 가.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압력에 대응·회복하고 이로 인한 의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지출검토 기간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출에 96억파운드를 확정하여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바이러스의 영향에 계속 대응하도록 함
- 팬데믹으로 지연된 비응급 진료를 지원하는 주요 캐치 업 프로그램에 80억파운

드 이상의 지출을 계획

- 비용급 진료 적체 해결, 디지털 기술 현대화 등을 위해 NHS에 자본 투자(59억파운드)
  - 진단 서비스 혁신(3년간 23억파운드), 의료기관 연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현대화 지원(3년간 21억파운드), 새로운 수술 허브, 입원 서비스 회복을 위한 병상 및 장비 확대(15억파운드) 등
-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습 손실 회복 지원 확대(신규 18억파운드 패키지 등)
- 팬데믹 기간 적체된 형사·사법 시스템 회복에 3년간 약 5억 파운드 지원 등

□ 미래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영국 전역의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 관련 자금을 연간 130억파운드 확보하여 NHS, 사회적 돌봄, 공공 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 개혁, 인력 훈련 등에 추가 지원
  -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을 통한 추가 재원을 NHS와 사회적 돌봄 분야에 직접 사용
- NHS의 자원 예산을 FY2024-25까지 1,600억파운드 이상으로 확대, 영국 전역의 커뮤니티 진단 센터를 통한 진단서비스 혁신(23억파운드), 병원 신설 및 업그레이드(42억파운드) 등 추진
- 의료 인력 신규 채용 확대 및 훈련 강화에 추가 자금 제공
- 장기적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자금 지원
- (주택)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자하고자 지출검토에서 FY2025-26까지 주택 분야에 약 240억파운드 자금을 배정
  - 115억파운드 투자(2021년~2026년)를 통해 18만개의 신규 저가 주택(affordable home)을 건설(이 중 65%는 런던 외 지역에 투자)
  - 신규 주택을 위한 유희 부지 활용에 추가 18억파운드 투자
  - 위험한 피복재를 사용한 고위험 빌딩 보수를 위해 50억파운드 자금 지원
  - 노숙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FY2024-25까지 약 6억 4천만파운드 자금 확정

- (치안·사법)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추가 19억파운드 제공, 신규 경찰관 2만 명 채용에 자금 지원,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간 자금 확대 등
- (교육) '2019 지출검토'에서 편성한 자금에 추가로 향후 3년간 잉글랜드의 핵심 학교 예산(core schools budget)을 47억파운드 확정
  - 이 외에도 교사 초임 연봉을 3만파운드로 인상하고 향후 10년간 500여개 학교의 재건축을 지원하며, 특수교육 학교 지원(26억파운드) 등도 추진

## 나. 성장에 대한 투자

- (혁신 제고)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R&D 투자를 2024-25년까지 200억파운드 규모로 확대
  - R&D 지출을 FY2026-27에 220억파운드까지 확대하고, 경제 전체의 R&D 투자를 2027년에 GDP의 2.4%까지 늘린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자금 증액
    - 항공 우주 분야의 R&D 지원 및 산업계와 공동 투자
    -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생물 정보학, 우주 기술 등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에서 합의한 우선순위에 지원
    - 국가 우주 전략에 따라 상업용 소형 위성 발사체 부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영국이 2022년에 유럽에서 로켓을 궤도로 발사하는 최초 국가가 되도록 지원
  - 영국의 혁신 기업 지원
    - Innovate UK<sup>10)</sup>에 최소 25억 파운드 자금(지출 검토 기간 동안 36% 증가)을 제공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자본,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
    - 탈탄소화, 녹색 에너지 등 혁신적인 녹색 기술에 정부가 투자
  - 이 외에도 R&D 조세 감면 제도 개선,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 (Global Talent Network 신규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디지털

10) 혁신을 촉진하고 R&D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 협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

□ (인프라 개혁) 지난 해 정부는 영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국가 인프라 전략(NIS)'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 및 지출 검토에서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

○ 지난 해 발표한 경제적 인프라 투자에 대한 1,000억파운드 이상의 다년도 자금 배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 인프라 전략 발표 이후 경제 인프라에 투입된 총 금액을 1,300억파운드로 확대

-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디지털, 지역 인프라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

· 지역 교통 네트워크 혁신을 위해 8개 영국 도시 지역에 57억파운드의 투자 패키지 제공, 자전거 도로 건설, 지방 도로 개선 등

· 지출 검토 기간의 철도 투자에 350억파운드 이상 자금 확정 등 철도 네트워크 확대

· 50억파운드의 '프로젝트 기가비트<sup>11)</sup>' 지속 추진, 고품질 4G 모바일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 등 디지털 연결성 제고 및 농촌 고립 문제 해결

○ 정부는 인프라를 더욱 우수하게, 신속하게, 친환경적으로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국가 인프라 전략에서 발표한 50개 개혁을 의회 회기 말까지 이행

- 정부에 대한 '국가 인프라 위원회'의 권고 시, 2050년 순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지원하도록 고려

□ (역량(skill)) 제고) 양질의 기술 교육에 투자, 직무 역량 향상 및 재교육 촉진, 견습직 지원 확대, 성인의 수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

○ T-레벨(기술 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FY2024-25까지 16-19세 교육에 추가 16억파운드를 지원

○ 이 외에도 Skills Bootcamp 확대, 평생 숙련 보장(Lifetime Skills Guarantee)<sup>12)</sup> 지

11) 프로젝트 기가비트(Project Gigabit)는 영국 전역에 초고속 기가비트 광대역 통신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임

12) 학자금 대출을 유연화하여 성인이 대학이나 평생교육 기관에서 고등 교육 수준의 교육이나

원 확대, 신규 성인 수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Multiply scheme) 지원 등을 계획

- 중소기업 견습직 채용 서비스 강화, 유연한 견습직 훈련 모델 지원 등 잉글랜드 내 견습직 지원 자금을 FY2024-25에 27억파운드로 확대

## 다. 국민 및 기업 지원

### □ 영국 전역의 생활 수준 향상

- (고용 및 역량 개발 지원) 향후 3년간 노동연금부(DWP)에 60억파운드 이상 자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소득을 높이고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 통합급여 수급자가 취업 지원을 받도록 '워크 코치'에 매년 9억파운드 투자, Restart 제도(장기 실업자 대상 맞춤형 구직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 Job Entry Targeted Support Scheme(3~12개월 실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연장에 9천만파운드 지원 등
  - 역량(skill) 관련 지출을 FY2024-25까지 총 38억파운드 확대하는 등 역량 개발에 투자<sup>13)</sup>
- (근로 소득 보장)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급여의 수당삭감률<sup>14)</sup> 하향 조정(63%→55%),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sup>15)</sup> 연간 500파운드 인상, 국가생활임금 인상(시간당 9.5파운드, 2022년 4월) 등 추진
- (아동 및 가족 지원) 정부의 무료 보육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 인상에 추가 1억 7천만파운드(FY2024-25),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Supporting Families Programme에 추가 2억파운드 투자
  - 맞춤형 모유 수유 서비스, 부모-영아 정신 건강 지원 등 새로운 영유아 프로그램, 잉글랜드 전역의 패밀리 허브 구축 지원 등 3억 2백만파운드의 신규 투자

---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3) 자세한 내용은 '성장에 대한 투자'중 '역량 제고'의 정책을 참고 바람

14)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비율

15)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수급 자격이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액 이상의 소득에 수당삭감률이 적용됨

- 휴일 활동 및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연간 2억파운드 이상 제공
- (기타) 연료세, 주세 동결을 통한 소비자 지원, 취약계층에 식품, 의복, 유틸리티 등 필수품 비용 지원(가계 지원 자금 5억파운드), 참전용사 지원 등
-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투자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개선) 향후 5년간 비주거 재산세로 인한 부담을 70억파운드 이상 경감하고 관련 세제를 더욱 공정하고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 변화가 회복 지원을 위해 40만개의 적격 소매,接客, 레저 부동산에 대해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한시적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시행
    - 비주거 재산세 승수<sup>16)</sup> 추가 1년 동결 등 5년간 46억파운드 규모의 조세 감면
    - 시설 개선, 신규 녹색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과세 완화 및 조세 경감
  -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연간 투자 공제 금액 한시적 확대(1백만파운드) 조치를 2023년 3월 말까지, 기업 회복 대출 제도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
  - 이 외에도 R&D 조세 감면 개혁,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한 은행 특별세 세율 인하(8%→3%, 2023년 4월), 팬데믹 피해 업종(공항, 문화·예술 부문 산업 등) 지원 연장 및 맞춤형 지원 등 추진

#### 라.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위해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규모는 2021년 3월 이래로 총 300억파운드에 달함
  - \* 영국 정부는 2021년 10월,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2020.11.)’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 하에 영국 경제 전부문의 탈탄소화 종합 계획을 담은 ‘넷 제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친환경적 운송) 운송 부문 탈탄소화 계획 이행을 위해 61억파운드 확정

16) 부동산 평가 가치에 승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승수는 전년도 승수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만 FY2021-22와 FY2022-23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

- 저·무공해 운송 기술 상업화 지원 관련 R&D 자금을 4억 1,600만파운드, 전기차 보급 지원에 추가 6억 2천만파운드, 버스·자전거 관련 인프라 투자 등 제공
- (친환경적 건물) 저소득 가구의 넷 제로 전환 및 에너지 비용 경감에 18억 파운드, 히트펌프(heat pump) 시장 성장을 위해 4억 5천만파운드 등 건물 탈탄소화에 39억파운드 확정
-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화) 2035년까지 영국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기술과 산업에 투자
  - 넷 제로 수소 기금(2억 4천만파운드), 탄소 포집 사용·저장 인프라 기금(10억 파운드) 등 주요 신산업에 투자
  - 신흥 저탄소 기술, 차세대 소형 및 첨단 모듈형 원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해상풍력 부문 3억 8천만파운드를 제공
- (자연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2억 5천만파운드 이상 지원, 이탄지 복원과 산림 조성을 위해 Nature for Climate Fund에 추가 6억 2,500만파운드 배정 등

#### 마. 지역균형발전(Lavelling up)

- ①기회 확산 및 취약 지역 공공 서비스 개선, ②생활 수준 제고, ③지역의 자부심 회복, ④지역 리더 및 커뮤니티에 권한 부여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취업 및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26억파운드의 영국 공동 번영 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인적자본에 투자
    - 이 외에도 커뮤니티 의료 진단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저가 주택 제공 등 앞서 제시된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들을 영국 전역에서 추진
  - 그레이터 맨체스터, 리버풀 시티 등에 런던 스타일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5년간 57억파운드), 2020~2025년에 50여개 지방 도로 개선(26억파운드), 지방도로 유지 보수(50억파운드) 등 인프라에 투자
  - 영국 전역의 Lavelling Up Fund 1차 배정으로 17억파운드의 지방 투자 예상

- 선정 지역에 의료 훈련 시설, 시장, 지역 어업 커뮤니티, 아트 센터 등 신설·재개발
- 이 외에도 영국 전역에 최신 커뮤니티 축구 경기장 건설·개조, 300여개 유스 클럽(향후 3년간 5억 6천만파운드) 등 지원

#### 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및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 영국이 G7 중 개발 강대국이자 최대 ODA 공여국으로서 세계를 이끌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등 주요 문제에 대응해 나갈 예정
  -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영국의 ODA 지원 비율(현재 GNI 대비 0.5%)을 FY2024-25에 0.7%로 다시 확대
  - 지출검토 기간 동안 국제 기후 금융에 최소 66억파운드,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17억 파운드 이상 지출하고 팬데믹 종식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
- 영국의 독립적인 무역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금을 제공하고 규제 개혁도 추진
  - 14억파운드의 신규 Global Britain Investment Fund를 통해 국제 기업이 생명 과학, 자동차 등 영국의 주요 혁신 산업에 투자하도록 보조금 제공
  - 국내선 항공여객세 인하로 영국 내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
  - 영국 해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영국의 톤세<sup>17)</sup> 제도를 현대화

#### 사.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지역 니즈에 맞는 특화된 조치와 주요 지역에 대한 지원 제공
  - 2021 지출검토에서 지출검토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46억파운드), 웨일즈(25억파운드), 북아일랜드(16억파운드)에 약 87억파운드(연간 평균)를 추가로 지원하여 학교, 주택,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교통 등에 투자하도록 함

17) 해운기업에 실제 영업이익 대신 운항하는 선박의 수와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이양 정부의 상황과 강점에 맞게 조정된 특화 계획을 Levelling Up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British Business Bank Fund 등을 통해 지원

## 5. 주요 재정정책 이슈

### 가. 2021 지출검토

- (지출검토 제도) 영국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일반적으로 2~4년마다 이루어지며 검토 기간 각 연도의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함<sup>18)</sup>
  - 보통은 3년 검토기간을 포괄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의 다년도 지출검토 이후, 2019년(Spending Round 2019)과 2020년(Spending Review 2020)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년도 검토가 이루어짐
- (2021 지출검토의 자금 배정) 2021 지출검토에서 FY2022-23부터 FY2024-25까지 총 3조 2,340억파운드의 지출 계획을 발표<sup>19)</sup>(<표 6>)
  - (총액)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총 부처별 지출 규모를 FY2024-25까지 연 평균 3.8% 증가하도록 하여 금세기 의회 회기 중 가장 큰 실질 증가가 나타날 전망
    - FY2024-25까지의 총 부처별 지출 규모가 연간 현금 기준 1,500억파운드, 실질 기준 900억파운드 증가
    - (자원 DEL) 이는 주로 부처 자원 지출(경상 지출)의 대규모 증가에 기인하며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연간 자원 DEL은 1,000억파운드 넘게 늘어날 전망
    - (자본 DEL)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총투자(gross public sector investment)에 6,000억파운드 이상 투자하는 야심찬 목표를 계속 이행할 예정이며 자본 DEL은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연평균 6.7%의 실질 증가율이 예상됨

18) Philip Brien and Matthew Keep, Background to the 2020 Spending Review, Briefing Paper No.09055, House of Commons Library, 2020.11.

19) 이하 내용은 Daniel Harari, Lorna Booth, Philip Brien, and Matthew Keep,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A summary,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10.28.; Chris Smith,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House of Lords Library, 2021.10.29.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autumn-budget-and-spending-review/> 을 참고함

- (부처별 지출) 재무부 장관은 2021 지출검토의 결과로 이번 의회 기간 (FY2019-20~FY2024-25) 동안 모든 중앙 부처의 예산이 실질 기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

※ 부처별 예산 배정 규모 및 상세 정책 내용은 예산안 원문 자료<sup>20)</sup>를 참고 바람

- 지출검토 기간 동안 전체 배정 자금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보건복지부 (DHSC)와 교육부(DfE)에 배정됨
  - 보건복지부의 총 연간 자금은 320억파운드 증가(FY2021-22~FY2024-25 연 평균 실질성장률 4.1%)할 전망이며 특히 NHS가 현금 기준으로 예산 증가의 혜택을 크게 받을 전망
    - \* 코로나19 관련 대응, 비응급 진료 지연 해결, 사회적 돌봄 개선, 생명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등에 배정
  - FY2021-22~FY2024-25에 교육부 배정액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0%로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부진 회복, 역량(skill) 제고 등에 지출 예정
- ‘레벨링업·주택·커뮤니티부’ 예산도 연평균 4.1%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levelling up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UK shared prosperity fund 등을 위한 자금 포함
- 외무부 예산의 실질성장률은 4.4%로, 2021 지출검토에서 ODA 지원 비율을 FY2024-25에 GNI의 0.7%로 복구하기 위한 예비 자금을 별도 편성함
  - \* 정부는 재정준칙이 충족되면 ODA 지출 수준을 0.7%로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함
- 지출검토 기간 동안 지방정부에 사회적 돌봄과 기타 서비스를 위해 48억파운드의 신규 보조금을 제공 예정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예산은 주로 자본 예산 증가의 영향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며 넷 제로 전략 지원을 포함해 R&D 공공 투자 증대 및 혁신 장려를 위한 자금이 포함됨
- 다만 국방부의 경상 예산은 실질 기준으로 FY2021-22 ~ FY2024-25 사이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임

20)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pp.93~131.

<표 6>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

구분	실적	계획						연평균 실질성장률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1-22~ 2024-25	2019-20~ 2024-25
<b>공공부문 경상지출</b>	989.1	930.0	921.1	947.8	974.3	1,009.6	1,047.9	1.9%	1.8%
자원 AME(Resource AME)	480.2	427.2	433.5	450.7	463.7	479.0	497.0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475.8	454.7	435.2	442.5	453.7	471.3	489.2	3.3%	3.1%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354.6	384.9	-	-	-	-	-		
코로나19 관련 자금	121.2	69.8	-	-	-	-	-		
감가상각 (Ring-fenced depreciation)	33.1	48.2	52.4	54.6	56.9	59.3	61.7		
<b>공공부문 총투자</b>	126.1	114.9	124.3	133.5	133.3	138.7	143.9	2.9%	4.6%
자본 AME(Capital AME)	32.4	15.7	17.4	22.1	21.5	21.6	22.3		
자본 DEL(Capital DEL)	93.7	99.3	106.8	111.5	111.9	117.1	121.5	1.9%	6.7%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본 DEL	87.9	98.7	-	-	-	-	-		
코로나19 관련 자금	5.8	0.5	-	-	-	-	-		
<b>총관리지출</b> (GDP 대비 비중(%))	1,115.2 (53.1)	1,045.0 (45.1)	1,045.4 (42.1)	1,081.4 (41.9)	1,107.6 (41.6)	1,148.3 (41.6)	1,191.7 (41.6)	2.0%	2.2%
총 DEL	569.5	553.9	542.1	554.0	565.6	588.3	610.8	3.0%	3.8%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DEL+자원 AME)과 공공부문 총투자(자본 DEL+자본 AME)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지출한도(DEL)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계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1.15.

## 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sup>21)</sup>

- (배경) 저금리에 힘입어 현재는 추가 차입을 감당할 수 있으나 높은 채무 수준으로 인해 재정이 미래 충격에 취약한 상황임
  -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공공 재정 민감도가 증가
- (주요 조치)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한 조기 조치를 취함
  - 2021년 봄 예산안에서 정부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과 최고 소득의 가계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공정하고 누진적인 조세 조치를 발표함
    - 법인세의 기본세율을 인상(19%→25%, 2023년 4월)하고 수익 5만파운드 미만 기업에는 별도 세율(19%)을 적용
    -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액(personal allowance)와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higher rate threshold)을 2022-23년부터 2025-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지 않고 동결
  -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을 도입할 예정(<Box 1>을 참고)
  -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내년에는 국가 연금 인상(uprating)에 있어 임금 상승률 연동을 중단함
    - 팬데믹으로 인한 연간 소득 증가율의 왜곡을 고려해 연금 인상 시 적용하는 트리플 락<sup>22)</sup>의 임금 요인을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
    - 이를 통해 연금 인상 왜곡을 방지해 재정 압력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장기 자금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추가 차입보다는 조세로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는 입장임

21) 이하 내용은 2021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 제시된 ‘Medium-term fiscal strategy and outlook’(pp.31~37)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2) 트리플 락(triple lock) : 연금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기준 중 최댓값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하는 정책

- 지난 1년간 이루어진 결정들의 결과로 공공부문 경상수입이 FY2021-22에 GDP의 37.2%에서 FY2026-27에 40.0%까지 늘어날 전망

□ (새로운 재정프레임 워크)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새로운 재정준칙\*에 의해 뒷받침될 예정

\* 재정준칙의 상세 내용은 '다. 재정준칙 개정(안)' 을 참고

- 중기에 GDP 대비 기초 채무 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채무 이자 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buffer)를 구축할 것임

- 재정준칙에 따라 차입비용이 낮을 때 높은 수준의 투자 지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 상환 부담가능성 등 다른 고려사항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 (모니터를 위한 추가 지표) 재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공공 채무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과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강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근거를 고려할 것임

\* 이번 예산책임현장 개정안에서 새롭게 제시된 부분이며 명확한 목표는 설정되지 않음

- (공공 채무의 부담 가능성) 거시경제 상황 및 전망의 변화에 대한 채무 상환 부담가능성의 민감도, 광범위한 리스크(eg. 외채 발행 비율)를 모니터링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의 지표 강화)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 공공부문 순금융부채(PSNFL: 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 공공부문 순자산(PSNW: public sector net worth) 등 모니터링

□ (지출 효율화) 정부는 2021 지출검토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해 사용하도록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하는 추가 조치를 취함

- 2021 지출검토에서 중앙부처 경성예산에 대한 5% 절감분을 확정

**<Box 1> 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신규 자원 조달 계획<sup>23)</sup>**

□ (개요) 영국 정부는 2021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지연 문제 해결,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sup>24)</sup>함

□ (투자 규모) 향후 3년간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개혁에 약 360억파운드를 투자

- (재원 조달) 2022년 4월부터 새롭게 ①'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1.25%)'을 도입하고 ②'배당세율'을 현행 세율 대비 1.25%p 인상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은 2022년에는 국가보험기여금(NIC<sup>25</sup>) 시스템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2023년부터 국가보험기여금과 분리하여 부과
    - \*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공제(Employment Allowance)를 동 부담금에도 적용<sup>26</sup>)
    - 2023년 4월부터는 국가 연금 수급 연령 이상의 근로자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대상을 확대

<표 7>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기여율

구분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업자	
	main rate	higher rate		main rate	higher rate
2021-22 NIC 기여율(현재)	12%	2%	13.8%	9%	2%
2022-23 NIC 기여율	13.25%	3.25%	15.05%	10.25%	3.25%
2023-24	NIC 기여율	12%	13.8%	9%	2%
	부담금	1.25%		1.25%	

주: higher rate은 특정 구간 이상 소득 금액에 적용하는 기여율임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Table 1.

<표 8> 배당세율

구분	기본세율	상위세율	최상위세율
2021-22 배당세율(현재)	7.5%	32.5%	38.1%
2022-23 배당세율	8.75%	33.75%	39.35%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Table 3.

#### 다. 재정준칙 개정(안)

□ (제도 개요) 영국은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 재정정

-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년 9월 재정동향」, 2021.9. pp.49~50. 일부 재인용
- 24)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Record £36 billion investment to reform NHS and Social Care, 2021.9.7.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36-billion-investment-to-reform-nhs-and-social-care>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5736/Build\\_Back\\_Better\\_-\\_Our\\_Plan\\_for\\_Health\\_and\\_Social\\_Car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5736/Build_Back_Better_-_Our_Plan_for_Health_and_Social_Care.pdf)
- 25)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26) 중소기업의 NIC 고용주 기여금 부담을 4,000파운드까지 감면

책 목표(objective for fiscal policy), 재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목표(fiscal mandate)와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을 규정

□ (재정준칙 개정(안)) 영국 정부는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거시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지원하고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정

\* 변경된 재정준칙은 예산책임헌장 개정안에 반영

○ 주요 기준

- (재정 목표(fiscal mandate))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
-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 재정수지와 지출상한 기준의 보완적 준칙 제시
  - (경상예산수지)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경상예산수지 균형 달성
  - (공공부문 순투자) 5년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이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복지지출 상한)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와 마진 이내로 유지
    - \* 한도는 국가 연금과 경기 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지출을 계속 제외함

○ (특징) 경상지출을 조세로 조달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허용해 영국 전역에서 인프라 투자 및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 가능

-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 전에는 경상예산 흑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재정정책이 지속적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지연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함
- 3개년 연동(rolling) 목표는 재정정책이 미래의 충격에 대응해 불필요하게 긴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
  -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1~2년 기간 동안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안정화하고 이자율이 낮을 때 통화정책을 지원 가능
- 재정준칙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며 미래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

- (예외조항) 영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있는 경우 재무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을 중단할 수 있음
  - 정부는 의회에 이를 진술해야 하며, 이후 각 예산에서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중단에서 복귀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달성 가능성 평가) 예산책임청 분석<sup>27)</sup>에 따르면 2021년 10월 전망 기준으로 개정 재정준칙의 네 지표 모두 달성될 가능성이 높음(<표 9>)

- FY2024-25에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 FY2024-25 경상예산수지는 251억파운드(GDP 대비 0.9%) 흑자가 예상되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 비율의 평균도 2.7%로 3% 기준을 하회할 것이며, 복지지출도 28억파운드의 마진을 두고 상한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다

<표 9> 재정준칙(안) 달성 전망

(단위: GDP대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십억파운드)	
		전망	마진	전망	마진
FY2024-25의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6	0.6	-	17.5
FY2024-25에 경상예산 흑자	충족	0.9	0.9	25.1	25.1
5년 전망기간의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	충족	2.7	0.3	-	7.3
FY2024-25에 대해 설정된 복지지출 상한	충족	-	-	138.3	2.8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10, Table 4.3.

27)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